

농촌형 도시재생 성공모델 ‘주목’

무주군, ‘무풍 심층지어울림센터’ 운영관리·높은 이용률로 주민 삶의 질 개선

무주군이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조성한 ‘무풍 심층지어울림센터’가 성공적인 운영관리와 높은 이용률로 주목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무풍 심층지어울림센터(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318-2번지)는 옛 무풍복지회관 부지(대지 447㎡)에 조성된 지상 4층, 연면적 962㎡ 규모 의 신축(총사업비 52억여 원)된 복합 거점 시설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 말하는 건축가 故 정가용 건축가의 무주 프로젝트와 어우러지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도서관·노인 교실 접근성 275m 단축(등급 외 → 1~2 등급),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155m를 단축(3등급 → 2등급)하며 기초생활인프라 최저 기준을 달성했다.

군에 따르면 무풍면 전체 인구는 2,102명으로 화합과 소통, 교육, 체력 단련 등을 위해 이곳을 이용 중인 주민은 4천여 명(연인원)에 이른다.

1층 무풍사랑방은 주민들의 소통 및 소득 창출 기반이 되고 있다. 지역 특산물(사과·고랭지 농산물) 홍보·판매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마을 카페는 주민협의체가 직접 운영 중이다.



무주군이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조성한 ‘무풍 심층지어울림센터’가 성공적인 운영관리와 높은 이용률로 주목받고 있다.

2층 다목적실·공유 주방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노인 치매 안심 교육, 다문화가정 한식 조리 교육 및 지역 토속 음식 개발 활동에 참여한다. 당구·탁구 등 실내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는 3층 무풍활력실에서는 아민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동아리 활동을 즐긴다.

4층 작은도서관·공부방(소회의실)에는 영농인 전문 서적과 교양서적을 갖춘 작은 도서관, 다문화가정 한글 교육이 이뤄지는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대학 운영, 마을 카페 바리스타 교육, 작은도서관 사서 교육, 귀농귀촌인 활력 프로그램, 대덕 산장터 5일 장 활성화 프로그램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상시 운영되고 있다. 무주군은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해 주민들과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활성화 거점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소이나루공원 자전거도로 새 단장

무주군, 약 1.8km 구간 차선 도색 공사 완료

무주군이 무주읍 소이나루공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와 마치고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무주군은 소이나루공원 주변 약 1.8km 구간의 자전거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보행자와 차량,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의 질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주군은 지난 7월 14일부터 약 2주간 공사를 진행해 해당 구간의 차선과 노면표시를 새롭게 정비했다.

소이나루공원 일대는 남대천을 따라 조성된 대표적인 산책·휴식 공간으



로 군민과 관광객들이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주 찾는 장소다.

이번 도색 공사를 통해 자전거 주행 구간과 차량 이동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면서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보건진료소에서도 예방접종 가능

진안군은 군민들의 예방접종 편의를 높이고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던 보건진료소에서도 오는 18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신증후군출혈열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군민들도 가까운 보건진료소에서 편

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면단위 지역은 보건진료소에서만 예방접종이 가능해 원거리 지역 군민들은 접종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진안군보건소는 이러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진료소 예방접종 체계를 구축하고 백신 관리와 예방 접종 교육 등을 완료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1.7톤 초대형 종모우 ‘대한이’ 뜬다

장수한우량사과랑축제서 만날 수 있어… 첨단 품종개량 기술 성과

장수군은 오는 9월 개최되는 ‘제20회 장수한우량사과랑축제’에서 품무게 약 1.7톤(1,700kg)에 달하는 초대형 종모우 ‘대한이’를 축제장에서 선보이며 장수한우의 우수성과 첨단 종축개량 기술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은 압도적인 체구와 뛰어난 유전능력을 갖춘 ‘대한이’를 만날 수 있다. ‘대한이’는 장수군 소재 종축개량 전문기업 (주)타바이오텍에서 OPU(난포란 채취) 기술과 수정란 이식(ET)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품종개량을 통해 생산된 우수 혈통으로 보유한 종모우다.

특히 ‘대한이’는 장수 한우 개량기술의 수준과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장수한우 품종개량의 성과와 미래 장수축산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수군은 이번 축제에서 ‘대한이’의 특별한 등장과 함께 한우 품종개량의 필요성과 성과, OPU 기술과 수정란 이



식기술 등 첨단 번식기술, 우수 유전 자원 확보 과정 등을 소개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장수한우 개량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종모우 ‘대한이’는 장수 한우의 우수성과 첨단 품종개량 기술의 성과를 관람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가 될 것이다”며 “많은 관광객이 축제를 찾아 대한이의 압도적인 모습을 직접 보고 장수 한우의 경쟁력과 미래 가능성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경영 진안군부군수, 폭염 대응 현장행정 강화

이경영 진안군부군수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일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 취약지역 관련 무더위쉼터 2개소(부귀보건지소, 관산2동 경로당), 건설사업장 1개소, 물놀이 시설 1개소 등 총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관산2동 경로당과 부귀보건지소(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폭염특보 발효 시 취약계층 안부 확인 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이어 건설사업장을 찾은 부군수는 근로자 운영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관



리 실태를 확인했다. 작업시간 조정, 휴게시설 및 그늘막 설치, 식수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며 무더운 시간대 작업 자제와 근로자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장을 방문해 안전 요원 배치, 응급구조 장비 비치, 시설물 안전·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여름철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산서면지사협, 독거노인 여름나기 영양식 지원

장수군 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재철)는 지난 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이웃과 함께하는 여름나기 지원 사업 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독거노인 40가구로, 협의체 위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삼계탕 등 영양식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



웃의 정을 나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본격 착수

진안군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DB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완료된 기본조사 결과 불합이 의심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공유 취득·경매 취득·외국인 및 법인 소유 등 투기 우려 농지 총 32,020필지(3,652ha)다.

전담 조사원 21명은 현장을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휴경·불법 전용·불법 임대차·불법 건축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점검한다.

군은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완료한 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시달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8월 정기분 주민세 2억8200만원 부과

진안군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총 14,428건, 2억8,2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세액을 살펴보면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경우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액 규모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는 것으로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나 자본금 등 과세기준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전용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